24시 울보

(눅6:20-26)

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21.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22.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4.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24시 울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24시 편의점은 24시간 열어놓는 편의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4시 울보', 24시간 일 년 365일 울고 있는 울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기들이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예외 없이 웁니다.
울지 않으면 뭔가 아기에게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기가 울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웃는 아기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나오는 아기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아기가 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아기가 하나님과 승천해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태어난다고 하면 울까요, 웃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기는 무조건 태어나기만 하면 다 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울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 말씀대로 표현해보자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매 다시는 곡할 일이나 애통할 일이나 사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날 때에 웃는 아기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면서 동시에 하나님나라로 들어가 버린다면 그 아기는 우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나라가 아니더라도 에덴으로 돌아가서, 에덴으로부터 추방되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아기는 아니었지만 아담이 처음 눈을 뜨고 의식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뵈었을 때(제일 먼저 본 대상이 하나님이었을 테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처럼 깜짝 놀라서 으앙 하고 울었겠습니까?
아닐 것이에요.
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울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기가 웁니까?
아기는 무조건 태어나면서 다 우는 게 아니에요.
우는 것과 웃는 것이 한 끗 차이 아닙니까?
그냥 아기가 태어나면서 "으하하하!" 하고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으앙!" 하고 웁니까?
에덴 밖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밖은 근본적으로 울음의 땅입니다.
웃음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울음의 땅에 살기 때문에 스물네 시간을 웁니다.

눈물 흘려본 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는 않지만 마음이 웁니다, 스물네 시간 울보로 삽니다.
왜? 근본적으로 추방된 에덴 바깥의 세상은 울음의 땅이기 때문에 웁니다.
그래서 이 울음의 땅에서 스물네 시간 울고 있는 울보들이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냐 하면 위로입니다.
스물네 시간 울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우는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위로의 꺼리를 찾는 것이 돼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건강을 돌봐도,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대권을 향해 달려도, 결국은 그 이유를 따져보면 울고 있는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위로를 찾는 거예요, 위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저는 올림픽 자체보다도 이번 올림픽에는 제 아들래미를 보는 재미로 올림픽 기간을 지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열광의 절정이 언제였나 하면 한국축구가 준결승에서 일본을 이겼을 때였습니다.
3시 50분에 함성소리에 깼어요, 그 뒤로는 도저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기도하다 잠자리에 다시 들어서 쉬다가 결국 컴퓨터를 틀어보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아이를 새벽 5시에 '우리가 이겼어'하고 깨웠더니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 새벽부터 다시 잘 생각도 안 하고 좋아하던 아이가 그만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분통이 터져서 안절부절 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날 밤 여자배구팀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동메달을 놓고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아이가 열불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자기 셔츠를 잡아당기면서 더워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기에 한 마디 했습니다.
'무진아, 축구를 이겼잖아, 축구를 이긴 기분이 배구 때문에 잡쳐서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 그래도 배구를 일본한테 지다니?' 하면서 이 순둥이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비록 배구는 졌지만 축구가 배구보다 비중이 훨씬 크니까, 운동 자체가 축구가 더 낫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나 일본 국민들이 마음에서 비중을 느끼는 정도가 축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안타깝고 아쉽게 우리나라 배구선수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졌지만, 그러나 비중이 축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비하면 훨씬 더 기뻐할 이유가 큰 거다'
이랬더니 아이가 그 비중이라는 말을 탁 받아듣고, 그렇게 여자배구가 진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던 그 마음을 달래며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비중이라는 단어를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TV 채널을 돌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채널을 돌리냐고 했더니 '좀 비중 있는 프로그램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아무 때나 비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자기 마음을 달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위로는 구원입니다.
위로는 슬픔과 고통, 분통에 잠겨있고 모든 격앙된 감정, 평정을 잃어버린 감정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구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 위로에요.
그런데 이 위로가 번지수가 잘못 될 때는 멸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울음의 땅에 태어나서 스물네 시간 울보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위로를 찾습니다마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울음의 위로를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될 때, 찾음이 곧 멸망에 멸망을 더하는 그러한 저주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그리고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웃을 것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저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너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가 딱 대칭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무엇이 가난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추측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돈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돈만 없으면 다 하나님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냐?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데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부요한 자가 왜 화를 받는가 하면 '너희는 이미 위로를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해요.
이 위로라는 말이 20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을 해결할 수 있는 keyword가 됩니다.
부요한 자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은 부요함, 경제적인 이유, 돈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울보의 마음에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화가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많이 저축되어 있어서 걱정이 안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마음에 닿으면서 마음에서 고통과 걱정과 슬픔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부터 화가 주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고 말씀해 놓고, 21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 말했는가 하면, '지금 주린 자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는 자는', 그 아래에도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 것이다'
'지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지금'이라는 때가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공생애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볼 때에 십자가 이후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승천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나라로 도달하는 그 길이 완성되기 이전의 상태가 지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아버지가 보좌에 앉아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접점으로 해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도는 십자가 이편의 세상이 있고 십자가 저편 하나님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내 마음이 몸이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내 마음은 십자가를 접점으로 해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십자가 저편 하나님나라로 들어갔고 그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는 것은 아직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를 접점으로 이 세상과 붙어있기 전 이 세상 안에서만 부요한 자,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위로꺼리를 찾은 자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울음의 땅입니다.
이 울음의 땅에서 위로꺼리를 찾은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울음의 땅에서 '지금' 만족하는 자, 배부른 자,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직 하나님나라가 접해져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으로만 위로꺼리를 찾고 만족꺼리를 찾고 웃음꺼리를 찾는 자들에게 화가 있고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나라가 접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나라로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갈 수 없는 한에 있어서는 마음의 위로꺼리가 없는 가난한 자, 마음의 만족꺼리가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자, 마음에 웃음꺼리가 없어서 슬퍼하고 있고 애통하고 있는 자, 차라리 그 자가 이제 하나님나라를 갖게 될 것이고(왜? 하나님나라가 붙지 않은 이 세상 안에서는 기쁨꺼리 만족꺼리 위로꺼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붙게 되는 저 세상으로 위로가 될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웃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땅만으로는 이 세상만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울음의 땅이 되었고, 위로가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마음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생긴 슬픔과 굶주림을 하나님 말고 돈으로 위로를 삼고, 하나님 말고 권력으로 위로를 삼고, 하나님 말고 아내와 남편으로 위로를 삼고, 자식으로 위로를 삼고, 올림픽 승리로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주에 저주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울음의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저주를 받은 상태인데, 그 울음의 땅 안에서 위로꺼리를 찾아냈다고 믿는 그것은 저주 위에 저주를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하는 중에 광고 문구를 하나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저들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참 표현이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선수들이 이겨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더 힘껏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우리를 선수들이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 하늘나라로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이곳에서 울고 있는 마음의 위로꺼리를 찾아냈는가, 굶주리고 있는 내 마음이 배부를 거리를 찾아냈는가, 슬퍼하고 있는 내 마음이 기뻐할 일을 찾아냈는가? 그러면 저주 위에 저주가 주어진 것이다.
마치 이것은 10만 원짜리 뷔페식당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10만 원짜리 뷔페에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개떡으로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서 울고 있다가 사도바울이 배설물이라고 규정해버린 이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마음의 위로꺼리를 삼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졌다고 위로를 받고 있는 이 상태, 그것은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하나님 계신 그 나라가 십자가를 접점으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주 중의 저주라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만 있을 바에는 차라리 우세요.
어차피 하나님나라를 가지 못하고, 하나님나라를 찾지 못한 바에는 차라리 고통스러워하세요.
차라리 배고파하세요, 차라리 가난하세요!
그것이 구원을 향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나라가 붙어버렸습니다.
접점으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위로꺼리를 찾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만족할 거리를 찾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기쁠 일을 찾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대신에 주님 승천해 계신 하늘나라로부터 성령께서 그 하나님나라를 느끼게 해주심으로 기쁘겠다고 소원하고, 그 나라를 느끼면서 아버지를 느끼면서 만족하겠다고 소원하고, 하나님아버지로만 울고 있는 내 마음에 위로를 삼겠다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나라를 느끼게 해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갖게 해주시면서, 하나님나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나라로 채워지고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상태로 이끌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계십니까?
자식 때문에 부담과 걱정에 짓눌려 계십니까?
그것들로 위로를 받거나 만족을 삼거나 기쁨으로 삼으려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죽어버리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계시는 하늘을 소망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상황과 관계없는 진짜 위로, 진짜 만족,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누가는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 안에서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찾지 않도록 우리의 죄의 습성이 원죄의 유전자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접해있는 하늘나라로부터 나의 위로와 만족과 기쁨이 내게 미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